







**표지사진 : • 3.8 대학로. 한국여성대회 거리 캠페인**

-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성문화의 변화는 우리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침들을 보고 실천가능한 지침 혹은 선호하는 지침에 다짐의 잎사귀를 붙여주세요.”
- 실천지침이 적힌 다짐의 나무에 지나는 시민들이 잎사귀를 달았습니다. 가장 많은 잎사귀를 얻은 지침은 “사용하는 말 성찰하기” 였구요. 그 다음이 “피해자를 돕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하지 않기” 순이었습니다.

**< 열림터 캠프 >**

- 2.22 ~ 24 용인
- 열두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축진게임, 콤플렉스와 위장, 상처받은 나, 유언장 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옆의 사진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는 ‘서로의 의자되기’.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인간의자 완성!!
- 캠프 후기는 p. 12쪽에 있어요.



**< ‘성폭력추방 거리 캠페인’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 3.6 신촌 지하철역 (사진출처-우먼타임즈)
- 거리캠페인은 ‘남성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을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는 캠페인 슬로건 중 일부입니다.



☆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하기 : 성폭력의 발생토대가 되는 여러 형태의 편견, 차별, 억압에 반대하기!! / ☆ 용기내서 말하기 : 성폭력적인 행동이나 여성 비하적인 말을 들었을 때 유쾌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 ☆ 피해자를 돕기 : 성폭력이 나와 우리 주변의 문제임을 알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 배우고 노력하기!!

**< 상담원 모꼬지 >**

- 상담활동중인 선생님들이 4.11~12 강촌으로 모꼬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선생님들은 모두 스물두분이구요. 이 날은 열다섯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원활동가로서의 나’ 란 주제로 적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눈 후, 모두들 술 한 잔 곁들인 얼굴들이죠?





## 새 정부에 바라는 성폭력 추방정책

이미경(본 상담소 소장)

### 1. 여는 말

올해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성폭력 추방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전국 10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1개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성폭력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도 2차에 걸쳐 개정이 됐고, 현재 3차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렇듯 성폭력 추방정책의 외양은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존재하고 있음이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 뉴스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담전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 해에 몇 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지, 고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통계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앞으로 성폭력 추방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성폭력 상담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2. 성폭력 추방정책의 과제

####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성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폭력특별법이 처음인데 이 법안에서는 성폭력을 따로 개념정의하지는 않은 채, 기존의 각 법안에서 해당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을 중심으로 구성

- 
- 1)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대신에 성폭력 피해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 많은 피해여성들은 분노와 고통, 절망 속에서도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힘을 갖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당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된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중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성기에 이물질 삽입 등의 행위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규정에는 좀 더 깊이있는 철학적인 고민과 합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 (2)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보호절차 강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심리적, 법적, 의료적인 통합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부에서는 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 중간 평가와 함께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1999)과 경찰청(2002)에서는 각각 수사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개발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운용되느냐 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 홍보, 실행계획 등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반대신문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진료와 보도시의 문제점들도 산적해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평균 2-3곳의 개인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을 전전해야만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여성폭력 긴급 의료지원센터>가 전국 7개의 병원으로 지정되어있고, 각 상담소당 45명분의 의료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들이닥치는 보도진들에게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인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외에도 수사·재판과정에서 비디오 녹화를 통해 반복진술을 피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확대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적 규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담당자 교육이 절실하다.



### (3) 민·관의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

우리나라의 성폭력 추방운동은 20여년의 역사성을 갖는다. 이 운동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천명하고 우리사회내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식의 전환과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위에서 정부의 성폭력 추방정책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여성운동단체의 요구가 제도화되어가면서, 특히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행정적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운동의 측면을 배제한 상담서비스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서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주요 정책인 통합상담소의 경우, 정책간담회가 있었지만 왜 통합상담소로 가야하는지, 그 방향은 어떠한지 등의 논의에는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이미 준비된 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식의 진행이어서 민주적 정책 수립절차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성위기전화 1366은 각 상담소로의 연계기능인지 상담의 기능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채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시행계획인 시설평가는 평가기준과 평가주체 등이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의 협력체제란 둘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였을 때에 가능해진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의 일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추방정책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상담소의 노하우와 조직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 3. 맺음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성폭력 관련 정책에 거는 기대도 크다. 정부는 성폭력 추방정책을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 성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추방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온 민간단체, 상담소 등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성폭력 추방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편 성폭력 추방운동에서의 성폭력 위험성의 강조가 여성들의 성(sexuality)을 무서운 성으로 각인시키는 역효과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들이 있다. 성폭력 추방정책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성적권리 등과 연계한 정책마련도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 2002년도 상담현황

☛ 여성주의 상담팀

###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2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27,243건(39,80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0,781건이다. 2002년에는 3,534건(4,877회)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3.8%인 2,961건(4,264회)이 성폭력 피해상담이다. 이는 2001년 2,869건(4,161회)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이다. 그 외는 스토킹 피해상담 139건(155회), 기타(성관련, 혼인빙자, 기타 문의) 433건(458회)으로 나타났다. <표10. 참고>

<표1. 연도별 상담현황>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상담건수
1991.92	2,834	2,028	1,349
1993	1,765	1,182	841
1994	2,553	1,723	1,356
1995	2,050	1,238	1,021
1996	3,459	2,138	1,779
1997	3,424	2,295	1,647
1998	4,285	2,948	2,085
1999	5,397	3,692	2,564
2000	4,164	2,873	2,309
2001	4,995	3,593	2,869
2002	4,877	3,533	2,961
총	39,803	27,243	20,781

### 2. 2002년 상담현황

#### 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2002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880건(97.3%), 남성이 80건(2.7%), 미상이 1건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649건(55.7%), 청소년 570건(19.3%), 어린이 461건(15.6%), 유아 211건(7.1%), 미상 70건(2.3%)으로 나타났다.

<표2. 성별 ·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성별	연령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617(54.6)	552(18.7)	442(14.9)	202(6.8)	67(2.3)	2,880(97.3)
남	32(1.1)	18(0.6)	19(0.7)	9(0.3)	2	80(2.7)
남,여	.	.	.	.	1	1
총계	1,649(55.7)	570(19.3)	461(15.6)	211(7.1)	70(2.3)	2,961(100)



## 2) 피해유형별

피해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96건(40.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942건(31.8%), 성희롱 479건(16.2%), 특수강간 174건(5.9%), 강간미수 88건(3%),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순이다.

<표3.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총계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2,961 (100)	942 (31.8)	88 (3)	174 (5.9)	1,196 (40.4)	479 (16.2)	49 (1.6)	26 (0.9)	7 (0.2)

## 3) 가해자 성별 · 연령별

성폭력 피해상담을 가해자 성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926건(98.8%)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게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이 27건(0.9%), 남성/여성 2건(0.1%), 미상이 6건(0.2%)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252건(76.1%), 청소년 311건(10.5%), 어린이 102건(3.4%), 유아 24건(0.8%), 미상 272건(9.2%)으로 나타났다.

2002년 성폭력 피해상담 중 437건이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가해자의 14.8%를 차지하며 2001년 11.8%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가해자 311건(10.5%), 어린이 102건(3.4%), 유아 24건(0.8%)이며, 이 중 만 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 가해자는 126건(4.2%)으로 2001년 84건(2.9%)보다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그 피해대상이 유아 및 어린이가 대부분으로 파악되어 또래집단에 의한 성폭력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가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형사상소추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사 요구, 학교측에 징계 촉구 등의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가해자 부모의 인식 결여로 인해 그 실효성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표4. 성별 · 연령별 가해자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9	5	.	3	.	27(0.9)
남	2,232	306	102	19	267	2,926(98.8)
남, 여	.	.	.	2	.	2(0.1)
미상	1	.	.	.	5	6(0.2)
총계	2,252(76.1)	311(10.5)	102(3.4)	24(0.8)	272(9.2)	2,961(100)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2,278건(77%), 모르는 사람 572건(19.3%), 미상 111건(3.7%)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597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내 378건(12.8%), 학교/학원내 351건(11.9%), 동네사람 218건(7.3%), 데이트상대 152건(5.1%), 채팅상대 95건(3.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상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아는 사람의 범주를 친족, 직장내, 데이트상대, 동네사람, 채팅, 서비스제공자, 성직자, 학교/학원내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속하지 않은 경우 아는사람 -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2,961건(100%) 중 기타관계에 의한 피해는 399건(13.5%)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의 친분관계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친분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로 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가 39건(10%), 데이트상대의 친구나 형/선후배 등에 의한 피해가 14건(3.5%), 남편의 친구, 남편의 직장상사/동료에 의한 피해가 6건(1.5%)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상용화 이후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오프라인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2001년 60건에서 2002년 95건으로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중고생, 대학생, 직장인으로 채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된 후 성폭력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비디오 촬영, 폭행, 협박, 금품갈취, 지속적 성관계 요구, 스토킹 등의 피해까지 입고 있다. 채팅으로 만난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만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화관을 주장하여 처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5.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건(%))

아는 사람 2,278 (77)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378(12.8)		직장내	데이트 상대	채팅 상대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타			
부	친/인척											
134 (4.5)	244 (8.3)	597 (20.2)	152 (5.1)	95 (3.2)	218 (7.3)	80 (2.7)	8 (0.3)	351 (11.9)	399 (13.5)	572 (19.3)	111 (3.7)	2,961 (100)

5) 1차 상담시 고소건수로 본 상담현황

2002년 성폭력 피해상담 총 2,961건 중 375건(12.7%)이 1차 상담시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볼 때 고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특수강간으로 174건 중 64건(36.8%)이며, 강간미수 88건 중 29건(33%), 강간 942건 중 123건(13.1%), 성추행 1,196건 중 143건(12%), 음란전화 49건 중 2건(4.1%), 사이버 성폭력 26건 중 1건(3.9%), 성희롱 479건 중 13건(2.7%) 순이다. <표6>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고소율이 가장 높아 1,649건 중 249건(15.1%)이 고소를 했고, 미상 70건 중 9건(12.9%), 어린이가 461건 중 50건(10.8%), 청소년 570건 중 55건(9.6%), 유아 211건 중 12건(5.7%) 순이다. <표7>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보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572건 중 125건(21.9%), 아는 사람의 경우는 2,278건 중 230건(10.1%)이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전체 피해의 77%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고소율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분관계가 높은 친족/친인척의 경우 고소율이 낮았고, 이보다 친분관계가 낮은 동네사람, 채팅상대일 경우가 고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8>

2002년에는 성폭력 피해로 문제제기 하거나 고소한 경우, 가해자측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측근(가족 및 지지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상담소가 지원한 사건의 예로는 유아성추행 피해자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선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 신도를 상대로 성폭력 가해를 한 성직자에 대해 문제 제기한 신도가 명예훼손으로 피소, 공개 대자보를 부착한 대학내 학단위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 등이 있다.

<표6. 피해유형별로 본 고소건수(형사소송)>

<단위: 건(%)>

총계	유형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계
계	123(13.1)*	29(33)	64(36.8)	143(12)	13(2.7)	2(4.1)	1(3.9)	0(0)	375
	4.2%	1%	2.2%	4.8%	0.4%	0.1%	.	.	12.7%**
전체	942(100)	88(100)	174(100)	1,196(100)	479(100)	49(100)	26(100)	7(100)	2,961

\* 보기 (예) 강간 942건 중 고소 123건 13.1%

\*\* 전체상담중 1차상담시 고소한 비율

<표7. 피해연령별로 본 고소건수(형사소송)>

<단위: 건(%)>

계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계		12(5.7)*	50(10.8)	55(9.6)	249(15.1)	9(12.9)	375
		0.4%	1.7%	1.9%	8.4%	0.3%	12.7%**
전체		211(100)	461(100)	570(100)	1,649(100)	70(100)	2,961

\* 보기 (예) 성인피해 211건 중 고소 12건 5.7%

\*\* 전체상담중 1차 상담시 고소한 비율

<표8.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본 고소건수(형사소송)>

<단위: 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계
	친족/친인척	직장내	데이트 상대	채팅 상대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신도	학교/학원내	기타			
계	10	49	16	14	42	9		28	62	125	20	375
	(2.6)*	(8.2)	(10.5)	(14.7)	(19.3)	(11.2)	.	(8)	(15.5)	(21.9)	(18)	
	0.3%	1.7%	0.5%	0.5%	1.4%	0.3%	.	1%	2.1%	4.2%	0.7%	12.7%**
전체	378	597	152	95	218	80	8	351	399	572	111	2,96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보기 (예) 친족/친인척 피해 378건 중 10건 2.6%


\*\* 전체상담중 1차 상담시 고소한 비율





여기는 상담실 I

6) 상담방법을 통해 본 상담현황

2002년 총 4,877회의 상담을 상담방법을 통해 살펴보면 전화상담 3,166회, 인터넷상담(계시판/이메일/채팅) 1,289회, 면접상담 399회, 서신상담 23회순이다. 

<표9. 상담 방법>

(단위: 회)

상담방법	전화	면접		인터넷	서신	전체
		일반	토요법률상담			
전체	3,166	292	107	1,289	23	4,877

<표10. 2002년 상담현황>

<피해유형별 · 연령별>

(단위: 건, %)

피해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05	271	113	24	29	942	
	17.1%*	9.2%	3.8%	0.8%	1%	31.8%	
	(53.6)**	(28.8)	(12)	(2.5)	(3.1)	(100)	
특수강간	121	34	16	.	3	174	
	4.1%	1.2%	0.5%	.	0.1%	5.9%	
	(69.6)	(19.5)	(9.2)	.	(1.7)	(100)	
강간미수	73	9	5	.	1	88	
	2.5%	0.3%	0.2%	.	.	3%	
	(83)	(10.2)	(5.7)	.	(1.1)	(100)	
성추행	503	199	295	183	16	1,196	
	17%	6.7%	10%	6.2%	0.5%	40.4%	
	(42.1)	(16.6)	(24.6)	(15.3)	(1.4)	(100)	
성희롱	388	49	28	4	10	479	
	13.1%	1.7%	1%	0.1%	0.3%	16.2%	
	(81)	(10.3)	(5.8)	(0.8)	(2.1)	(100)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전화	41	3	.	.	5	49
		1.3%	0.1%	.	.	0.2%	1.6%
		(83.3)	(6.3)	.	.	(10.4)	(100)
	사이버성폭력	13	4	4	.	5	26
		0.4%	0.1%	0.1%	.	0.2%	0.9%
		(50)	(15.4)	(15.4)	.	(19.2)	(100)
물래카메라	5	1	.	.	1	7	
	0.2%	.	.	.	.	0.2%	
성폭력계	1,649	570	461	211	70	2,961	
	55.7%	19.3%	15.6%	7.1%	2.3%	100%	

\* 보기 (예) 17.1% - 성폭력 피해 중 성인 강간 피해 비율

\*\* 보기 (예) 53.6 - 강간 피해중 성인 피해자 비율

스토킹	129	6	1	.	3	139
	22.6%	1%	0.2%	.	0.5%	24.3%
	(92.8)	(4.3)	(0.7)	.	(2.2)	(100)
성관련	78	55	2	2	62	199
	13.6%	9.7%	0.3%	0.3%	10.9%	34.8%
	(39.2)	(27.6)	(1)	(1)	(31.2)	(100)
혼빙간	26	.	.	.	2	28
	4.6%	.	.	.	0.3%	4.9%
	(92.9)	.	.	.	(7.1)	(100)
기타	90	19	7	.	90	206
	15.7%	3.4%	1.2%	.	15.7%	36%
	(43.7)	(9.2)	(3.4)	.	(43.7)	(100)
기타 계	323	80	10	2	157	572
	56.5%	14.1%	1.7%	0.3%	27.4%	100%
총 계	1,972	650	471	213	227	3,533
	55.9%	18.4%	13.3%	6%	6.4%	100%

<가해유형별 · 연령별>

(단위: 건, %)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708	110	9	.	115	942	
	23.9%*	3.7%	0.3%	.	3.9%	31.8%	
	(75.1)**	(11.7)	(1)	.	(12.2)	(100)	
특수강간	117	25	3	.	29	174	
	3.9%	0.9%	0.1%	.	1%	5.9%	
	(67.2)	(14.4)	(1.7)	.	(16.7)	(100)	
강간미수	79	6	1	.	2	88	
	2.7%	0.2%	(1.1)	.	0.1%	3%	
	(89.8)	(6.8)	.	.	(2.3)	(100)	
성추행	876	145	76	23	76	1,196	
	29.5%	4.9%	2.6%	0.8%	2.6%	40.4%	
	(73.2)	(12.1)	(6.4)	(1.9)	(6.4)	(100)	
성희롱	433	20	12	1	13	479	
	14.7%	0.7%	0.4%	(0.2)	0.4%	16.2%	
	(90.4)	(4.2)	(2.5)	.	(2.7)	(100)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전화	23	1	.	.	25	49
		0.8%	(2)	.	.	0.8%	1.6%
		(47)	.	.	.	(51)	(100)
	사이버성폭력	11	3	1	.	11	26
		0.4%	0.1%	(3.9)	.	0.4%	0.9%
		(42.3)	(11.5)	.	.	(42.3)	(100)
몰래카메라	5	1	.	.	1	7	
	0.2%	(14.3)	.	.	(14.3)	0.2%	
	(71.4)	.	.	.	.	(100)	
성폭력 계	2,252	311	102	24	272	2,961	
	76.1%	10.5%	3.4%	0.8%	9.2%	100%	

\* 보기 (예) 23.9% - 성폭력 가해 중 성인 강간 피해자 비율

\*\* 보기 (예) 75.1 - 강간 피해중 성인 피해자 비율

♣ 표(10)에서는 강간, 성추행 등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성폭력으로 분류되어 있고, 스토킹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열림터 캠프 - 마음의 보따리를 풀자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열**림터 식구들의 2003년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다. 빈 배낭 속에 각자 무엇  
을 채워나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갈 몇 번의 여행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마음의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 열림터 식구들에 대한 이해, 배려, 신뢰. 그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한 식구임을 나누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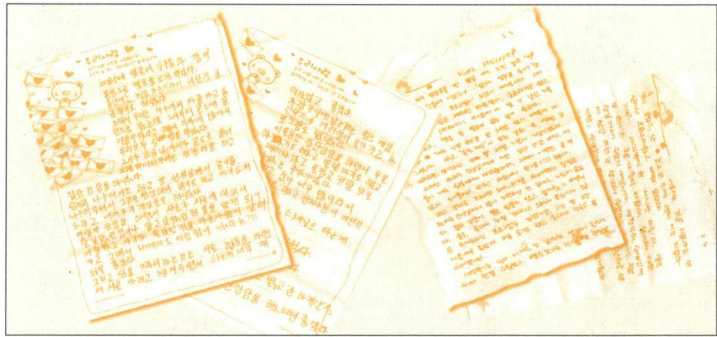
나는 누구일까? 내가 힘들었던 때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꼭 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꿈과 희망을 찾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한다.

아직은 하얀 눈이 곱게 덮힌 설원이 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갖고 싶었던 꿈과 희망을 찾았다. 그리고 새 봄이 싹틀 때 또 하나의 여행을 할 수 있음에 부푼 마음으로 다음의 여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행을 했던 식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래는 지난 2월 22일~24일 열림터 식구들이 캠프의 마지막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정리하면서 적은 소감문입니다. 인간관계훈련이라는 크나큰 목표를 가지고, 굳은 결의속에서 뻑뻑한 일정을 완벽히 소화해 내었습니다. 소감문 후의 놀이공원이 애타서였을까요? 모두 모두 좋은(?) 얘기들 뿐이네요. 절대 편집한 것은 아니니 이점 유념해 주세요. ^^

그리고 우리는 떠났답니다. 놀이공원을 향해서~ 인간관계훈련의 퍼펙트한 진수를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습까지의 완벽한 소화를 위해... 끝.





첫 날 와서 일정표를 딱 봤을 때, 느낀 점은 ‘아! 또 조금은 힘들어 지겠구나...’ 였다. 일정표 중에 ‘상처받은 나’-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다른 애들은 어떠한 반응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난 벌써 여러번 캠프를 했었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맘도 들었다. 그리고 ‘추진 게임’이 있는 걸 보고 또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진짜 말 그대로 기분이 긴장되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저번 집단 상담때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미안했다며 그래서 이번엔 좀 재밌게 해볼려고 한다고 하셨기에 밀기로(?!)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해나가면서 정말로 선생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단 상담이 별로 힘들지 않고 즐거웠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에 정말 진지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워지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좋았다. 비록 울기도 했고, 울다가 얼굴도 부어버렸지만...

서명받기는 누가 이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가 한결 수월했고, 별칭짓기는 각자 다 정말로 어울리는 것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난 짓고 난 뒤에 괜히 이걸 지었다 싶어서 후회스럽고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지막 하루’와 ‘유언장 쓰기’는 조금 가슴이 아팠다. 옆에서 이 선생님께서 우셨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선생님께서 항상 이런걸 생각해 두셨다고 하셔서도 그랬지만 선생님네 가족보다 정말로 우리 열림터를 생각해 주셔서였다.

아름, 이번 집단상담은 진짜로 즐거웠던 것 같다.

-17세. adamas -





22일날에 열림터 식구들과 같이 용인으로 캠프를 오게 되었다. 용인에는 처음 가는 거라서 어딘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서 차를 타고 용인으로 왔는데 2시부터 콘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의자에 앉아 우리 모두 김밥을 먹었다.

2시가 조금 넘어서야 콘도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짐정리를 하고 집단상담을 하였다.

팀끼리 나누어서도 하고 또 선생님께서 종이를 나누어주셔서 그것을 완성해서 읽기도 하고 자기 소개도하고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하였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점이나 알고 싶었던 점들을 알게되어서 좋았고 자기가 몰랐던 점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점이 있다는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팀을 짜서 하는 것은 서로 협동을 하면서 서로 아끼고 챙겨주면서 하는게 너무 재미있었고 좋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링크 게임, 신문지에 여러명이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틀동안 집단상담을 하면서 우울하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했고 재미있었고 즐겁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춥기도 했고 진자 눈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스키, 스노우보트 타는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다.

여러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내고 건강하고 밝고 강하게 살자.

다음에도 이렇게 집단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17세. 하트강-

## 숨 털

● 래이

※ 나에게 있어 숨털은,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사회구조적 메시지 속에서 지니게 된 편견 등을 비유한 것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일상 생활에 부당하고 황당한 현상들을 일어나게 한 것들이다.

### ○ 바람이 불어 마음이 간지럽다

“너도 잘못된 것이 있잖아. 친구로서 니가 반성했으면 좋겠어”

친구의 충고로 인해 알 수 없는 떨림과 고단함이 밀려온다.

친구의 말이 바람이 되어 오랫동안 주위를 머물렀고, 마음은 창문만을 남긴 채 굳게 닫혀 버렸다. 오늘도 바람이 분다.

### ○ 저기 숨털이 있다

원치 않게 당한 일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반성해야 할 문제인가. 두려움과 조바심에 시달린다. 시간 시간이 뒷에 걸린 마음에 울음소리 같다.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은 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뿐이다.

“왜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미숙이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원래 그런 성격이죠?”

주위에는 설명해야 할 사람과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뿐, 오히려 설명과 도움을 청하는 데서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다. 고단한 것은 폭력을 당한 일과 그에 대한 변명들 때문이다. 반성할 일도, 미숙함도 내 안에는 있지 않았다.

세상의 숨털에서 벗어난 괴로움이었다.

### ○ 열기구에 태워 후- 날려보내라


“숨털을 어떻게 처치하지?”

“무슨 소리야? 숨털이 뭐야?”

“숨털은 말야, 생명체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야. 바람 같은 잣대로 생명체를 다치게 하는 털들 말야. 눈에 잘 띄진 않는 거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숨털을 하나씩 찾아내서 열기구에 태워 날려보내지는 거야”

오늘은 바람이 일지 않기를 바란다. 



## 성폭력 근절과 갈등해결 따라잡기

장윤경(본 상담소 자문위원)

### 1. 갈등해결도 학문이라고요?

갈등, 중재, 협상,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의 제목은 서점에 가면 주제별로 테이블에 진열해 놓고 홍보하는 책 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주제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고, 때로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다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류의 긴 역사 속에 '갈등'이라는 주제는 늘 존재했고, 지금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대결과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그로 인해 전쟁, 인권의 침해, 환경파괴, 성폭력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인류는 또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순이·효순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웃 간의 각종 분쟁, 가족간의 갈등, 공공분쟁 등등. 이렇듯 싸움의 역사는 인류나 사회라는 커다란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삶에도 존재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살건, 여럿이 함께 무엇인가를 해가면서 우리는 다른 주장과 욕구를 가진 상대와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래서 갈등해결의 과정과 결과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인류의 역사는 각 분야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왔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최근에는 학문으로까지 정착되었고, 갈등분쟁 해결을 전공으로 하는 과정도 여러개 개설되어 있다. 갈등해결학은 국제 분쟁에서부터 이웃이나 개인간의 분쟁 그리고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등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년전 갈등해결 방법론 소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이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보다 집중적인 갈등해결 방법

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8개월에 걸친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14명의 중견활동가가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은 갈등해결 방법론을 배우면서 평화, 인권, 통일, 여성 등의 관심영역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갈등해결을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지금은 갈등해결 방법론과 이론을 적용하여 평화교육과 여성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활동영역과 관심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 중에 있다.

## 2. 갈등해결이 성폭력을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요?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필자의 관심영역은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갈등해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였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추가된 관심영역은 ‘조직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다.

우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갈등해결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의 가장 큰 고민은 스스로 성폭력 피해 자체를 갈등이라고 정의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폭력을 상호간의 갈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를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갈등해결 방법론을 배우면서, 또 피해자들의 특징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서구의 적용의 예를 보면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은 1974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300여개, 유럽 등 21개 국가에서 50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 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도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구성은 가해 행동 인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주로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이나 심리치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3.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 1) 상담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에 관한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원리에 의한 중재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서구의 경험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과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피해와 가해라는 분명한 상황이 있고, 워낙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조정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본 상담소에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요구로 여러 차례의 중재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올바른 중재를 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갈등해결 방법론은 참여 학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특징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데 있다. 따라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예방이나 대응 등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트 성폭력, 학내 성폭력 등 분명한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진행자가 양성되어야만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인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피해자 대상의 자기 강화프로그램, 가해자 대상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프로그램과 재교육 프로그램 등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민주시민교육 방법(Metaplan)이 도입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강의식이나 주입식 교육 형태의 지식 전달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발생 원인이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 권력관계, 성의 상품화와 남성중심적 성문화, 왜곡된 가족문화 등의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바꾸어 가려면 강의식이나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김희은외, 2002).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캠프에서 시범적으로 성폭력 관련 갈등해결 교육을 한 경험에 의하면, 성폭력에 관한 인식이 낮은 참가자의 경우도 프로그램 후에 자신이 성폭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의식에 변화가 온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했다.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하여 교육하고 또 재교육에도 활용한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갈등해결에서는 드러난 문제인 '입장(positions)'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익(interests)' 에 초

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상담원 교육에서 갈등해결의 기본적인 훈련을 해 본 결과 상담원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4. 성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단편적인 소개이기 때문에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새로운 분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해결은 '어떤 문제에, 누가 혹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등의 사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갈등해결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관련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에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1993년 16.4%에 달했던 학교폭력이 클린턴 행정부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School Safety) 캠페인으로 진행한 또래 중재와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로 1996년에는 학교폭력이 12.8%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강연진, 1999). 또래 중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갈등해결 중재 교육을 실시하여 동료나 후배들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 중재자가 되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듯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절하게 시행한다면 생각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추방활동을 해 온지 벌써 10여년이 훌쩍 넘어섰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폭력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학교내 특히 대학내 성폭력인 경우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도 좀 더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기대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갈등해결의 이론과 방법론의 적용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운동의 제도화

정경자

### 여성운동은 위기인가 아니면 아주 사라져 버린 것인가?

여성운동이 변하고 있다. 아니 변해버렸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운동이 놓여 있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또한 여성 활동가들의 면면이 바뀔에 따라 여성운동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미국의 여성학자 라이넬트(Reinelt)는 '여성운동 조직이 점차 위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변함에 따라 여성운동 조직과 다른 조직간에 구분이 모호해지며, 또한 누구를 여성운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호한 상황에서 여성활동가들은 그들이 서있는 이념적인 기초마저 흔들림을 느낀다' 고 지적한다. 덧붙여서 '여성운동과 운동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활동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지, 아니면 아주 교묘한 형태의 여성 억압인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질문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운동가들과 여성학자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과연 여성운동이며 어떻게 여성주의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여성운동, 무엇이 변했는가?

여성운동의 전략이 달라졌다. 거리 시위 등과 같은 전투적 전략에서 로비, 증언, 법제정, 교육

- 본 상담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으며, 초기 상근활동가로 활동.
-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에서 여성학과 정책학을 공부. 급변하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호주와 한국의 두 여성 운동 조직을 통해 비교했다. 현재는 같은 대학에서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교수. 한국의 여성정책과 아시아에서 여성주의 실천하기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 대안적 건강법 - 요가, 기, 향요법, 자연치료, 무공해 먹거리를 알리고 실천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다.

등 보다 온건한 전략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불어 여성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여성운동의 양태는 복잡다양해졌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각 나라의 여성문제들을 서로 나누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이다. 여성운동계는 여성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성과 중의 하나로 정부에게 여성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인지시키고 법제정 등을 통해 여성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여성운동에 대한 정부의 증가된 지원은 운동 조직들이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했으나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 여성운동의 제도화 혹은 주류화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의식적이며 집단적인 활동을 지칭한다. 여성운동은 성차별의 철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해 왔다. 의식화 작업 / 공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 채택 / 고유한 여성 문화 창조 / 성폭력 상담소 / 여성 책방 등 대안적인 여성 조직 만들기 /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직을 원칙으로 자매애, 보살핌,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 참여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여성운동은 안정된 구조에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기존 조직 - 국가나 정부기구의 자원을 요구 · 이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도화이다.

프리만(Freeman)은 제도화란 '운동이 기존의 주류 조직에 흡수되거나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조직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제도화는 문헌에 따라 참여의 정치 혹은 관료화, 주류화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도화를 지지하는 겔브(Gelb)와 같은 학자는 제도화를 '운동의 동원력(mobiliz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믿음만한 자원으로 보며, 제도화를 통해 운동의 성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법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제도화는 '조직의 급진적인 이념을 희석시키고,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게 하며 조직의 구조를 더 위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제도화에 관련한 쟁점들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급진성과 개량주의

운동 조직의 특성은 항상 그 시대에 맞는 급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어 왔다. 제도화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급진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회문제나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이를 가져온다. 다른 조직의 자원들 -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활용하면서 운동 조직이 이슈화한 문제들은 다른 관점으로 정의되어진다.

윌슨(Wilson)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사회문제나 여성문제 등이 사회구조적인 문제 보다는 개인적, 의료적, 심리학적 문제로 정의되어짐을 지적한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후에 호주와 영국의 성폭력 상담소들의 변화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여성운동의 지원으로 이슈화된 성폭력 문제가 정부가 개입하면서 의료적, 병리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졌고 그 결과 대다수의 상담소들은 국공립 병원에 설립되어졌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여성 단체들은 이 문제를 여성문제로 보다는 가정의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력들의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아내 구타라는 용어 대신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김현정). 미국의 80년대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 조직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을 여성운동 조직으로 부르기조차 꺼려했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제도권 밖의 급진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문제들을 정책의 안건으로 채택하게 하였으며, 여성문제와 페미니스트 담론이 주변화되는 것을 막고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 사회 변화 혹은 서비스 제공

제도화는 조직들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게 하며 이로 인해 조직은 정부의 통제와 규제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는 논의가 있다. 서비스 중점의 사업은 재정 위기 등에 직면하면서 조직들로 하여금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한다.

또한 조직을 전문화, 형식화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하고 여성 대중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한 있다. 무엇보다도 조직의 활동이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재편되어짐에 따라 운동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버리게 된다.

한편, 겔브와 디즈니(Gelb & Disney) 등 일군의 학자들은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과 서비스 제공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들이 연구한 대부분의 운동 조직들은 사회 변화

와 서비스 둘 다에 주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운동이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회원을 확보, 보다 건실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민주적 조직 혹은 위계적 조직

국가의 재정지원 등의 제도화는 조직의 구조와 형태에도 변화를 야기한다. 우선 유급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형식적인 조직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운동 단체에서 사회복지 단체로 조직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기도 한다.

또한 조직 내의 활동가들간의 관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자 관계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활동가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 역량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에 의해 고용되어 진다. 또한 제도화는 운동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시킨다. 여성운동 조직들을 심하게는 다른 단체가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 서로의 영역을 흡수하고 차지하려 한다고 한다.

## 사례연구

제도화와 국가와의 관계의 변화가 여성운동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호주의 사례연구를 통해 조사했다. 이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이 단체에서 현장 연구를 하였다. 이 단체는 1974년에 설립된 페미니스트 성폭력 상담소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급진적인 여성운동 조직의 하나이다.

성폭력의 급진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상담소와는 달리 아직도 강간 위기 센터라는 단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시내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에서 저렴하게 임대해준 주택을 사무실과 면접·전화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장 연구 당시 상근활동가는 10명이었으며 몇 명의 시간제 상담원들이 있었다.

소장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부서에 각각 한 명씩의 상근 직원, 나머지는 모두 상담 활동가들이다. 소장과 사무국 직원이 재정과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개발부 상근자는 운동과 관련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상담 활동가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지역사회 개발부 활동에 참여한다.

필자의 사례연구는 거리 시위 참여로 시작되었다. 약 100여명이 학생, 활동가와 일반인등 주국 회의사당 앞에 모여 최근의 성폭력 상담소를 포함한 여성운동 단체에 대한 재정 삭감을 항의했다.



이 단체는 재정의 전부를 주정부에 의존해왔다. 늘어난 재정 규모를 위해 재정의 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고 주정부에 재정지원 증액을 요구한다.

주정부는 두 명의 감사관을 파견해 이 단체의 재정 상태와 모든 활동들을 점검하고 운동 분야의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게 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근무시간을 주 8시간 줄이거나 소장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운영비를 맞추도록 제안한다.

연이은 회의 끝에 운동 분야의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게하기로 결정, 그 후 소장과 사무국 활동가도 감사 결과와 상담소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퇴한다. 이 단체는 초기의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들였으며, 그 후로도 그들의 역사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상근활동가들이 언급할 만큼 여러 번의 재정 위기를 겪는다.

70년대 중반 한국의 90년대와 유사하게 친여성주의적인 휘트람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를 계기로 상당수의 전직 여성운동가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된다(호주에서 여성주의 관료를 뜻하는 'femocrat'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여성운동 단체들은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개혁을 위해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는 일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1975년부터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았고 많은 활동가들이 이에 반대하여 사직하였다.

기금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었으며, 상근활동가 한 명의 급료를 지불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자원활동가들에 의존하여 운영되어졌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을 받은 후, 보다 개량적인 접근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지는 자원활동가들과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상근자들 사이에 갈등의 폭이 깊어져, 결국 1980년부터 모든 자원활동가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단체는 1980년대 말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 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를 맞이하여 모든 재정과 관련한 지침들과 행정적 절차들을 따라야만 했다.

1990년 초에는 더욱 보수적인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재정지원이 끊길까 염려되어 사단법인으로 인가받고, 순수한 활동가 중심의 평등한 조직에서 지역사회 인사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소장을 두는 위계가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림 : 나눔터

## ■ 제도화의 결과

### 통합된 구조 속의 일부, 자율성의 상실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제도화가 이 단체의 정치적인 활동을 감소시켰으며,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졌다는 것이다. 감사관들은 이 단체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업무의 중복과 다른 유사 단체들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혼자서 모든 관련 활동들을 담당하지 말고 다른 단체와 협력하며 활동하라고 지시한다.

이 단체의 정체성을 '유일한 24시간 전화 상담소'로 규정하면서 활동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지 말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상당부분의 예산이 운동을 위한 활동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실제로는 전체 예산의 7%정도가 운동을 위한 활동에 쓰여지고 있으며, 그것도 담당 상근자의 급여로 쓰여지고 있었다.

즉 이 단체는 더 이상 독립적인 운동조직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채, 국가의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개발부 상근자의 자리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이 단체는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해 버릴 위험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호주가 시장경제와 경제적 합리주의 (economic rationalism)를 도입하면서 시민·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었고, 단체들이 통합되어졌으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었다. 상담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고 캠페인, 연대 활동 등의 정치적 활동에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활동가들의 불만과 잦은 이직

호주의 활동가들은 제도화에 따라 조직이 형식화되고 위계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 불만족해 했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낮은 급여와 24시간제 근무라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이념 때문에, 여성운동 조직이 가진 개방성·평등·민주·참여라는 참신성 때문에 그곳에서 활동한다. 여전히 다른 조직들보다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그들의 역할과 조직 안에서의 영향력은 축소되어버렸으며, 이와 함께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자들과 일반 상근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즉 제도화는 조직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종종 운동 단체를 아주 떠나게 만들었다.

### 시간과 인적 자원의 부족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재정을 포함한 그들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요구되어졌다. 우선 재정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시간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25년 동안 당연히 정부에 의존하던 재정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 재정을 위해 뛰어다녀야만 하는가'라며 활동가들이 재정마련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가도 있었다. 이 단체를 포함한 호주의 많은 여성 단체들이 여성 노동력의 착취라는 이유로 자원활동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상근자들이 철저하게 시간제로(주당 35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주로 상담) 이외의 일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례로 위기에 직면하여 회의를 할 때 시간제 임시 상담원을 고용해야 했으며 이것은 이 단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안겨 주었다.

또한 상근자들 대부분이 상담원이고, 24시간 상담을 위해 3교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상근자 운영회의를 제외하고는 함께 모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만한 인력이 없었고 조직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할 만한 시간조차 없었다.

또한 자원활동가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동원력을 상실하는 등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상실한 힘없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정부의 재정 지원의 한계를 미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운동이 놓여진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여성운동이라고 믿으며 활동하는가’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와 실천들은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변화, 발전해 왔다. 여성운동도 예외일 순 없다. 우리사회는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성찰과 비판 그리고 평가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운동과 활동가들은 그 임무를 수행할 핵심에서 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권과 여성활동가의 자기 비판,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 경쟁과 살아남기 등의 현재의 당면한 과제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주의 원칙들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왜 여성운동을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그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운동가들이 모여서 토론해야 한다.

여성운동을 이끌고 구성해 나갈 중심은 바로 활동가들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여성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훈련, 여성운동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이 변화된 시대에 여성운동의 급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늘 기울여야 한다. 그 여성들 옆에 서서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힘을 줄 때 여성들은 여성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여성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바로 운동성의 뿌리이다.





## 상담현장에서의 여성주의

▶ 일시: 2003. 3. 10 / 7시

▶ 장소: 본 상담소 모임터

**참석 패널** : 박신연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신상숙(서울대 성희롱상담소), 이안혜성(줍마네 내공 프로그램),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변혜정(사회자)** : 여성주의 실천의 한 방법으로서의 상담현장에서, '상담과 여성주의 -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상담, 피해자 지원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고자 이번 좌담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각각의 경험 속에서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드는 생각들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 변화를 지향하는 여성주의와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게하는 상담은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여성주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박연숙** : 여성주의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것,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본을 이룬다고 믿거든요. 내담자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성차별의 문제, 가부장적 구조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여성주의 상담이 가지는 힘이고, 여성주의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힘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변혜정** : 제 경우,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변화' 와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상담' 이라는

것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이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갈등 지점을 가라앉힌다는 것이 이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상담을 통해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입시키면서 이들과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인 여성의 힘을 키우게 하는 empowerment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나, 그 개인의 힘을 키우는 과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혜순** : 저는 여성운동가와 여성주의 상담가가 똑같이 여성운동가라고 생각해요. 여성주의 운동가가 구조의 변화에 앞장선다면, 여성주의 상담가는 구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변화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구조 변화 쪽으로 끌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구조변화나 의식변화는 매우 쫓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혜성** : 상담을 하면서 나의 의식에는 이미 잡혀져 있는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 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현실에 대한 파악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행복해진다' 라는 감을 갖고 상담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 이 사람이 서 있는 계단의 지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아무리 좋은 걸 쥐듯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잡을 수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서 있는 지점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는 눈높이에 가는 과정이 상담인데, 그것이 여성단체 상담에서는 취약하다는 인상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처해있는 위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가져야만, 그 힘을 갖고 사회변화에도 동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 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상숙** : 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 상담은 이런거예요. '**여성주의는 sisterhood를 지향하지만 big sisterhood를 지향해서는 곤란하다**' 는 것. 여성운동에 대한 마인드도 결국 개인의 지점에서는 여성주의 상담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텐데 이 지점에서 항상 경계해야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와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는 저 자신이 뭔가 한 개인의 위치라기보다 하나의 구조에 대해서 거대한 뭔가에 맞서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빅시스터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개인이건 그룹이건...

**현혜순** : 상담이라는 것이 여성주의 관점을 상대에게 주입시키고 의식화시키는 것만은 아닐거예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주의 마인드만 갖고는 안된다는 거죠. 상담 토대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인데, 기존 상담기법들과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존 상담에서의 여성주의 관점의 부족,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적 취약성 :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기법들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소화해서 다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혜순 :** 그런데, 현장에서 부딪치는 벽은 우리가 여성주의 상담을 하면서도 슈퍼바이저들이 여성주의 마인드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주의 상담의 핵심적 특징은 관점인데 기존 심리학이나 인지행동 쪽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신념’이나 ‘긍정적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남성중심적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론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벽을 깬다는 것이 아직은 힘들고...

**박연숙 :**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하는 상담이 상담이냐. 너희가 하는 상담 전문성이 뭐냐?” 라는 비판을 처음부터 받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상담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함께기는 여성주의 상담’으로 정리하면서 상담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운동을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시작한지 그리 오랜 역사가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론화, 체계화 작업이 필요함을 더 갈급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여성주의 상담을 (실제로 해왔지만) 이론화하고 축적해내는 작업을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변혜정 :** 상담의 여러 기법들을 여성 현장에 적용할 때, 그런 기법들을 제가 신뢰하기가 참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의 접근 방법, 기술 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면 상담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기법들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소화해서 다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 ◆ 기존 상담기법들과 여성주의와의 행복한 만남을 위한 시도들

**안혜성 :**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시도하고 있고. 우리가 번역본으로 볼 수 있었던 책 중에서 <여자들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게쉬탈트나 융이나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도 분석, 평가하면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책 지은이가 80년대에 쓴 책 중에서 『In Our One Hand』라는, ‘Self Help Therapy’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건데. 7·80년대 영국에서 여성주의 마인드를 가진 세라피를 고민하는 레드 세라피

\*\*그룹이 있었더라구요.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는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방법, 서로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을 여러 권 써냈더라구요. <여자들의 꿈>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돕는데 가이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주의와 상담이 만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혜순** : 우리는 일단은 다 실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의 심리학 이론을 여성주의에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그 이론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존 이론들을 가져와서 통합을 해야지. 우리도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 기존 이론에서 기법을 가져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안 되는 것은 버리고, 맞는 것은 우리 것으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성주의 상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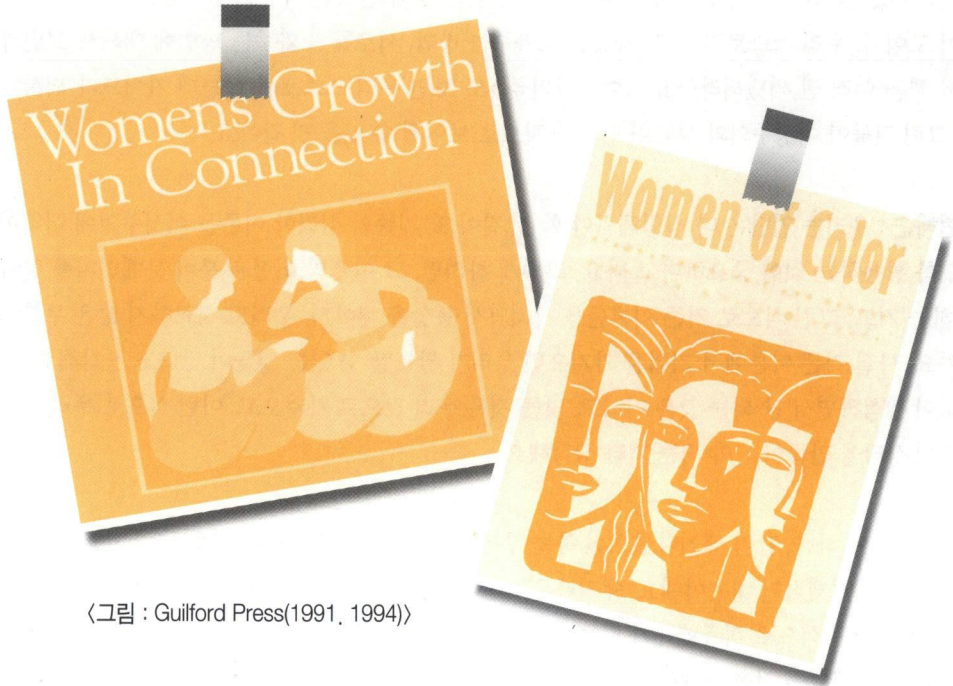
**변혜정** : 또 하나, 같이 얘기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각각의 현장에서 여성주의와 상담을 접목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얘기나온 <여자들의 꿈> 등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있다면 어느정도로,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가 하는 것. 안혜성 선생님께서 내공프로그램을 여성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했다는 것을 소개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혜성** : 줌마네에서 제가 하고 있는 내공프로그램은 마음의 힘 기르기인데, 2기 것을 잠깐 소개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 여성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삶의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성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한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그것을 밖에 내걸지는 않았었고.

30대 여성들 7명정도가 모였고, 예술 치료 기법을 많이 써서 집단을 해나갔어요. 모두 각자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공통점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각의 문제를 풀어낼 때 자기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자기 얘기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예술 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외부에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여성주의라는 시각과 기법 -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조금 고민이 되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얻고 싶어했던 것은 마음의 힘을 기르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남편과의 갈등에서 싸울 수 있는 힘, 시어머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싶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힘, 내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갖고 싶어 했던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림 : Guilford Press(1991, 1994)〉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증가하는 상담소들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신상숙** : 제가 처해있는 현장에서의 ‘상담현장과 여성주의’는 앞에서 말씀하신 고민들 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것과 문제해결과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담자의 위치가 무엇인가, ‘(대학)상담소의 위상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크게 들어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상담이 앞서 말씀하신 심리 상담이나 여성주의적 주체화라는 것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왜냐면 대학의 상담소는 심리상담이나 피해자 지원만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서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조사활동,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구 등의 문제가 중첩돼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는 사실 그 ‘상담’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들기 쉽고, 결국은 문제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사과를 받아내고 피해자의 상처입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가 등의 선에서 논의되기가 쉽다는 거죠.

**현혜순** :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 둘 다를 해결해야 하는 지점에서, 여성주의가 설 자리

가 취약하다는 얘기인가요?

**신상숙** :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여성주의를 관철시키느냐하는 문제예요. '난 너와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지만 여기서 함께 논의를 해야해.' 식의 다른 접근방식으로 나가야 하고, 그 속에서 여성주의를 살려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부분인거죠.

**여성단체의 운동의 성과로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대학의 상담소라는 곳은 여성운동의 제도적 성과가 굳혀지는 지점인 건데, '실제 그 제도적 성과안에서 여성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정해진 바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제도적인 경계에 있고, 그 제도적 경계에서 모든게 다 혼용이 되요. 어느 순간엔 운동의 현장이 되고 어느 순간엔 가장 제도적인 여성이 되버리고 어느 순간엔 가장 관료적인 존재가 됐다가....

운동의 성과로 제도화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 더 이상 운동의 이슈로 남아있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참.... 여성운동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한편으로 성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사실 이 문제는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같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지 성폭력상담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좀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여성들이 더 이상 페미니즘을 원치 않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다 했고, 이제는 다른 운동을 해야 하나.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겪게 되는 고민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해요... 단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한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이벤트들을 만들어가는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계속 더 생성되지 못할 때, 혹은 그것이 이미 되어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안혜성** : 큰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면서 '가자!'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시기별로 깃발을 들지 않고 가면서도 여러 사람 모여서 갈 때도 있고, 백 명이 갈 때도 있고 다섯 명이 갈 때도 있고 ... 이런 길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 같은 고민들을 던져주지만,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지만 의식의 변화만큼 괴리가 더 커져서든요. 그 떨어져 있는 간극 때문에 혼란은 더 커져서 할 일이 사실 더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신상숙** : 대학의 상담소, 여성단체 상담소, 일반 상담소 등 상담, 상담소리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도 각각의 활동의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활동지점자체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맥락적인 특수성속에서 각 상담소의 위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현혜순** : 각 상담소마다 '상담과 운동'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이름은 같은 상담소지만, 그 내용들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각자가 주력하는 특성화, 전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은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 전화가 하나까 나는 심리상담을 좀 더 전문화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상담한다고 운동이 아니라는 식의 시각도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여성주의라는 지붕아래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각 상담소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그 센터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여성주의 상담은..

**현혜순** :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면서 하나씩 얻어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모니터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상담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구요.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도 필요하고, 동시에 어떤 기술이 있건 없건, 여성주의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담자와 사회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작고 조금씩 일어나요. 그치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큰 힘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박연숙** : 상담하면서 '내가 배우려고 상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한 단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쟁길 일이 많아도, 상담시간을 정해놓고 할애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단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성주의 상담이 저에게 주는 성찰적인 부분이예요. 성차별 사회에서 내담자나 내가 똑같이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이 여성주의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기반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혜성** : 민우회 상담소 들어갈 때가 96년도였어요. 그때 여성주의와 상담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해결하려고 상담 현장에 들어가서 경험들을 하면서 좌충우들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민우회에 있을 때는 뭔가가 어떻게 되어

야만 할 것 같고, 뭔가 탁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내 손에 안 잡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잘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했지만, '분명 있다' 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줌마네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성주의와 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결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말로 풀어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변혜정** : 상담소라는 이름이 주는 한계성 때문에 단체 이름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있었어요. 갑론을박속에서 당시 논의되었던 것은 '상담소라는 이름이 한계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기존 상담이 갖는 한정적 의미 때문이다. 운동단체로서의 상담소의 역사와 맥락을 봤을 때 여성단체의 상담소라는 이름을 통해 상담이라는 의미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잠정적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요. 운동조직에서 내세우는 상담의 의미는 기존 심리학의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의 의미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성을 담보한 상담이라고 할 때 여성주의 상담, 개인과 구조의 변화 등의 상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성들을 채워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좌담을 기획했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앞으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

● 상담현장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여러지점에서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나고 함께 참석한 상담원선생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답니다. 이후, 이런 고민들을 각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나누는 자리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셔서 귀중한 의견 나눠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그 남자의 잔인한 말 버릇

서동진(문화평론가/서울퀴어아카이브 프로그래머)

### 성과 권력 그리고 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입씨름이 곧 권력의 싸움이란 점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향간의 페미니스트들이 “이제부터 나는 보지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한다거나 “월경을 찬미한다”고 주장할 때, 이는 앞전빼고 짐작은 채 하는 아버지-오빠-가부장적 권위를 꼴탕먹이려는 뼈딱한 용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떠들고, 그 말들을 독점하는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이 말들의 ‘사용’이 갖는 반권력이다.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을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한 투쟁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잖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 몸을 가리키고 드러내며 표현하는 말들은 언제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혹은 동성 사이의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말은 재현의 권력이다. 이 때 일컫는 말의 재현적 권력이란 무엇보다 말을 주고받는 짝패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권력을 가리킨다. 말은 따라서 말을 건네는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권력을 나눠준다. 말을 듣는 상대가 있건 없건 언제나 말은 너와 나의 관계 사이에서 흘러 다닌다. 그러니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말귀를 알아먹었다는 것이기에 앞서 너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말을 주고받는지 밝혀주어야 한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말을 통하게 하는 여건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말은 그런 점에서 말을 주고받는 상대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힘이다. “이 감동이 높아”라고 백인이 부를 때 그것은 대단히 인종차별적인 말이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흑인들 사이에서 불릴 때 그 말은 당신과 나는 같은 편이며 이심전심이라는 감정적 유대를 확인하는 말이 된다. “이 망할 년아”라는 말을 부부 싸움 도중에 남편이 내뱉는다면 그것은 언짢고 공격적인 폭언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여고 동창끼리의 말이라면 그 어느 말보다 돈독한 우정을 드러내는 말이 된다. 이처럼 말은 어떤 뜻을 가리키기에 앞서 말을 주고받는 상대 사이의 관계와 그 권력을 빚어낸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말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관계를 헤아리는 것이다.

## 남자의 말, 여자의 말

그럼 이 대목에서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란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은 남자의 몫이었다. 여자의 몸을 정의하고 판별하며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남성들의 의학과 생리학이었다.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분배하는 것 역시 언제나 남성들의 법학이었고 경제학이었다. 설마 산부인과학을 여자들이 만들었으며, 가정법과 호주상속법을 여자들이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쏟아내는 말이란 것도 결국에는 남성들의 말을 빌려쓰는 셋방살이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둘러싸고 대단한 감수성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말꼬리 잡길 좋아하고, 별말 아닌데 빠치고, 수다라면 사족을 못쓰는’ 여자들에게 대한 세간의 곱지 않은 눈길은 그래서 반쯤은 일리 있는 말이다. 적어도 그런 푸념과 비난을 여성의 말을 둘러싼 감수성으로 고쳐 읽는다면 그런 여성의 수다와 말버릇은 전연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가진 말의 영역이고, 또 남성들이 장악한 말의 공간으로부터 달아나고 또 끼어 드는 여성의 전략이자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들의 그런 말버릇 혹은 말의 실천을 남성들이 불쾌해하고 비난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남성들이 계속 통제하고 있는 말의 권력과 통제를 여자들이 위반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남성들이 제일 질겁하는 여자는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여자이다.

## 남자의 말, 남자의 폭력

그렇다면 여자들이 말의 숨통을 틔면서 자신의 말을 드러내는 공간을 무작정 축복하고 예찬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군소리’ 이자 ‘소음’ 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여자들의 잔소리와 바가지와 수다와 말꼬리가 ‘나라’ 의 말이 되고 ‘가족’ 의 말이 되고 ‘회사’ 의 말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말들은 계모임과 동창회와 드라마를 본 뒤의 잠담 자리에서 오가는 말이며, 고작해야 사랑하는 사이에서나 용기를 내어 뱉어낼 수 있는 말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말의 공간은 여전히 남성들의 말이고, 여자들은 말이 건네지는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말의 세계에서 언제나 말은 곧 여성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지배의 그물을 엮어낸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할라치면 ‘보지의 혼잣말’ 로 될 ‘버자이너 모놀로그’ 같은 연극이 꿈꾸는 세상은 아마 그런 말의 공간으로부터 해방된 여자끼리의 말의 지대일 것이다.

그러나 혼잣말을 흉내낸 그 무대의 말들이 여성들에게 희열과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은 여성의 억압된 진실을 폭로하고 무언가 새로운 교훈적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 혼잣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그 말의 힘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던 말을 제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으리라.



그렇다면 남자들의 말의 폭력이란 것도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평균적인 남성이라면 그의 계급적 지위와 교양의 수준을 불문하고 부부 싸움의 절정에서 걸핏하면 토해내는 “화냥년” 운운과 “갈보” 운운의 욕설은 그리 대단한 폭력이 아니다. 그 말은 관습적인 이성애적 부부관계에서 여성의 성을 아내-어머니로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음을 깨달은 남자들의 무력한 비명에 불과하다. 자기의 아내더러 그런 욕설을 퍼부를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일부종사라는 세계에 살지 않고 있음을 자인한다. 그는 부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내의 정체성을 어머니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제 스스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부릴 수 있으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더없이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말을 들어 유쾌할 여지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조신하고 정숙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만 상처받는 일이다.


남편과 애인의 질투와 억측을 비난해봤자 그것은 고쳐지고 반성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의 현실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말은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여성의 삶과 현실을 비추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자인 자신과 여자인 ‘당신, 여보, 자기’ 사이에 놓은 관계의 문법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 폭력과 침묵,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의 말


알다시피 남자들의 가장 ‘잔인한’ 말버릇은 그가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현실적인 자기 (self)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관계 자체를 분석하는 중립적인 관관의 몸짓을 취할 때이다. 갑자기 친밀한 관계에서 오가던 모습을 안면몰수하고 진리와 규범을 대변하는 발언자의 자리에 선 채, 끈덕지고 집요하게 여자에게 말을 건넬 때, 대개 우리는 거의 질릴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오히려 낮을 붉히거나 찌푸린 채 쏟아져 나오는 욕설보다 더 잔인하고 난폭하며 숨막히게 한다. 이 때 물론 남편의 위치는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무식하고 버릇없는 자신의 여자를 심문하고 벌하는 아버지 혹은 선생님의 자리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불편을 고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의지라곤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럴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그건 싫어요’ 라는 말을 언제나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밖에 들을 수 없는 반편짜리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의 말의 폭력은 여자들에게 가해진 구체적인 말의 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여성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들은 빈약하게나마 성별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들춰내고 그 관계에 묶인 주체들의 위치를 폭로한다. 적어도 그 말들은 난폭하고 비겁하긴 하지만 둘 사이에 관계와 작용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며, 비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소통을 향한 욕망을 품고 있다. 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의 말은 그런 용기와 정직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발뺌하는 폭력이다. 그 말이 진정 폭력적인 것은 무엇보다 관계를 맺는 타인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그녀를 영원히 허깨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다. 그런 남자의 말들은 결국 타인인 여자의 말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의 말이 허용하는 규칙 안에서만 숨쉬게 한다. 결국 여자들의 말이 의미 있는 삶의 체험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투쟁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투쟁은 자신에게 강요된 침묵을 깨트리는 일이고 자신을 감히 스스로 드러내고 인식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 fi 그 남자의 자인한 말 버스에 하고 시편 말 드

 변혜정(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서 동진 선생님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잘 모르지만 존칭 '님께' 를 썼습니다. '님' 이 항상 존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님' 이 의미하는 바는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예의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용하는 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무관하게 그 사회에서 흘러 다니는 의미를 통해서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선생님의 글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 의 말이 타인의 설 자리를 지워 버리고 더욱 폭력적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모 신문의 시평을 조금 인용합니다.

-나일로 보자면 아버지와 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차 시중들었다고 그리 흉하게 보일 것도 없다. 설령 그런 시중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폭행과 같이 파렴치한 행위도 아닌데 공개적인 서면사과는 무엇이고 전교조는 거기에 왜 끼어들었는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번 사건은 -(중략)



이런 글은 정말 “자신의 말이 허용하는 규칙 안에서만 숨쉬게 하며” 더 이상의 여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말만큼이나 저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남자의 말의 폭력’에 대한 선생님의 아량(?)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말이 선생님이 말 한대로 관계를 헤아리는 것이라면 저는 괜히 선생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람피운 아내에게 남편이 할 수 있는 ‘화냥년/갈보’라는 말/욕은 분명 ‘사실’이지요. 바람피운 아내는 분명 이 사회의 화냥년입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여자임’을 선언한 멋진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후배는 자기 ID를 역설적으로 화냥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상처받는다면 정말 바람 필 자격도 없지요.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여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성이 멋진 여성이고도 싶고 어머니 아내임을 포기하지 못하기도 하는 욕심쟁이여서 그 말에 불쾌했을까요? 저는 여성이 욕심쟁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무력한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많은 여자들이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도 많은 남자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말을 뱉고 여성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요. 정말 그 말, 그 행동에 엄청난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대로, 양말 아무데나 뒤집어놓듯이 말도 던져버리고 여자의 웃도 벗깁니다. 그것이 그 남자의 사랑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되든 그 여자와 소통하고 싶은 그 남자만의 방식으로요. 비뚤어진 것이지만 소통을 향한 욕망을 품고 있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러나 여성에게는 ‘소통’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여자들은 왜 이리 이것을 벗어 나지 못할까? 언제나 레퍼토리가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깊은 한 쉼만 쉴 것입니다. 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통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글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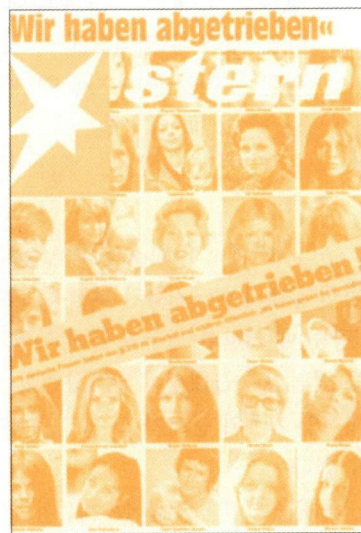
## 폭력적 현실에서의 같은 말, 다른 의미

1971년 프랑스 “Nouvel Observateur”라는 잡지는 낙태를 한 343명의 여성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숙녀는 자기 남편과 피임에 대한 것을 입에 올려선 안된다”는 당시의 여성관과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에 대해서도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원치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은 의사에게 거부당하고 스스로 낙태를 하려다 심한 출혈과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되었던 위 잡지의 기사는 이후 독일에서 ‘고백하기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림은 독일 ‘Stem’ 지 / 표제 “우리는 낙태를 했다”)

기사에 실린 여성들은 당시 “schlampe, slot(더러운 여자, 잡년)”이라 불렸는데, 피임에 대한 상대방의 공동책임과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얘기한 해당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부정, 멸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다.

99년 독일 Spiegel지와와의 인터뷰에서 Benoitte Groult라는 한 여성은 당시 사회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잡년”이라 고백하지 못했음을 얘기했고, 지금은 그 대열에 용기내어 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스스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잡년”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때로 그것은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남성 혹은 남성중심적 사회가 그 주체가 될 때 그 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될 때 그것은, 남성들이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에, 남성의 요구에 간혀 스스로를 억압하는 상태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그 도발적인 선언과 힘에 멧진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녀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부정되고 억압되는 폭력적인 현실에서 기인하는 힘이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에서 나오는 자기부정을 통한 긍정의 전복적 시도이다.

-나눔터 편집부



## 근대의 '자유연애결혼',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sup>1)</sup>

이명선

※ 필자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주체'-'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근대 자유연애결혼을 매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1. 식민지 근대 사회와 '자유연애결혼'

우리사회에서 1920-30년대는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억압의 시기이면서, (모순적이게도)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서구의 근대 사상과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즉 2·30년대는 식민성과 근대성이 교차하면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유교적 관습과 제도들이 붕괴되고 근대적인 가치와 문화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가는 충돌과 갈등, 변화와 역동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는 또한 당시를 살았던 여성들에게는 물론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다. 최근의 여성해방운동이나 남녀평등론을 두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해방사상'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던 시점을 살펴보면 1920년대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해방사상이나 여성문제는 지식인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비록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기는 하나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환산 문제, 육아문제, 가사와 직업의 이

※이 글은 필자의 박사논문인 "식민지 근대의 '신여성'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2)" 중 IV장의 일부입니다.

중노동, 성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여성들이 근대교육을 받고 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이 하나의 집단적 세력으로 가시화되었던 시점이기도 했다.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 혹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 는 것은 사실상 여성의 역사에서 보면 혁명적인 '사건'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유교적 내외법의 전통속에 갇혀있던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능력이나 직업을 통해 그동안 남성의 영역이었던 사회 영역으로 걸어나오게 된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양가집 여자가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세간의 이야기 거리가 되던 상황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 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해방사상의 태동,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분명 전통사회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사회적 변화의 징후이자 결과의 하나였다. 비록 식민지라는 정치적 억압아래에 있었지만, 근대사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와 아울러 '개인' 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식민지인' 과 '자유로운 개인' 은 매우 모순적이지만, 식민지인이라는 타자성은 오히려 식민지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추구에 몰두하도록 하는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개인' 이라는 근대적 가치는 자신의 정치적 타자성을 보상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의 지식인들이 '자유연애결혼' 즉 '자유롭고 자발적인 개인들간의 사랑과 결혼' 이라는 새로운 혼인제도에 그토록 열광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유연애결혼은 자유와 평등, 개인성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혼인제도이면서,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대적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근대인들은 자유연애결혼을 채택함으로써 근대의 이상을 실천하고 근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 2. 남성중심적 해석과 역사적 '통념' 들

“역사에는 사실(fact)도 진실(truth)도 없으며 단지 특정한 시각에서 문제시되어 재구성된 '현실' 만이 있다” 는 우에노 치즈코의 주장은 역사가 객관성을 담보한 진실 혹은 사실의 기록이기 보다 사회적 권력관계와 특정한 관점을 통해 재구성된 하나의 해석체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대사회의 맥락에서 등장한 자유연애결혼에 관한 몇몇 통념들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자유연애결혼에 대한 남성중심적 해석을 구성하면서 당시 여성들의 삶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유연애결혼을 주장한 것은 (주로) 신여성들이다”, 그리고 “자유연애결혼을 실천 한 신여성들의 성적 방종이 그들의 삶을 몰락시켰다” 는 통념들일 것이다.

이러한 통념들은 소위 '신여성' 의 삶을 바라보는 당대 남성 지식인들의 관점이면서 또한 학계



에서 진행되어 온 '신여성 연구'의 주요한 계보를 형성하는 평가방식이다. 무엇보다 자유연애결혼을 신여성의 '성적 문란'이나 '삶의 실패'와 직결시켜 평가하는 논의들은 소위 '배운 여성' 혹은 '지식인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을 생산하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처럼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자유연애결혼은 단지 신여성들만이 주장하고 실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여성보다는 '신남성' 즉 지식인 남성들이 더 열정적으로 자유연애결혼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자유연애결혼=성적 문란=삶의 실패'라는 공식이 일반적인 사실인 양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자유연애결혼'에 대한 남성들의 편견과 가부장제 사회의 이중적 규범이 관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근대 자유연애결혼을 둘러싼 당대인들의 담론에서부터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 3. 여성과 남성의 다른 목소리

자유연애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19세기말 개화사상의 일환으로 그 맹이를 보인 후 근대 사회를 주도한 여러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자유연애결혼은 단순히 혼인규범의 문제이기보다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근대인들의 욕망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자유연애결혼은 개화사상가나 자유주의 지식인 혹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치열한 논쟁의 지점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계층적, 이념적 지점에 따라 자유연애결혼의 의미나 내용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특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성에 따라 자유연애결혼이 담고 있는 근대성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연애결혼을 설명하는 남성과 여성 지식인들의 '다른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

남성들이 자유연애결혼을 통해 '근대적 개인'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성적 주체'로서 가부장적 성 규범을 해체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자유연애결혼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전통'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남성들이 '전통'을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가족제도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로 해석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과 지배'로 이해한다.

#### ◆ '전통'의 비판과 '근대적 개인'

이광수, 김기진, 주요섭 등 당대의 논객들은 자유연애결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연애결혼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 상당히 공을 들여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전통적 혼인제도가 “송아지 얻는 것처럼 배 맞추거나 돼지나 강아지를 나누어 갖는 것” 처럼 무지하고 동물적인 관습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즉 두 인격적 주체간의 사랑이 없는 결혼은 “매음적 간음”에 불과하며 그런 점에서 윤리적으로 ‘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 논의에서 대가족 제도와 ‘아버지’는 자신의 개인성을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전통혼인을 강제하는 ‘전통’의 화신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연애결혼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근대적 개인성’을 획득하기 위한 실천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전통에 내재된 불평등한 성별구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근대적 개인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분리된 ‘남성적 개인(주체)’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성별권력의 문제를 간과한 관념적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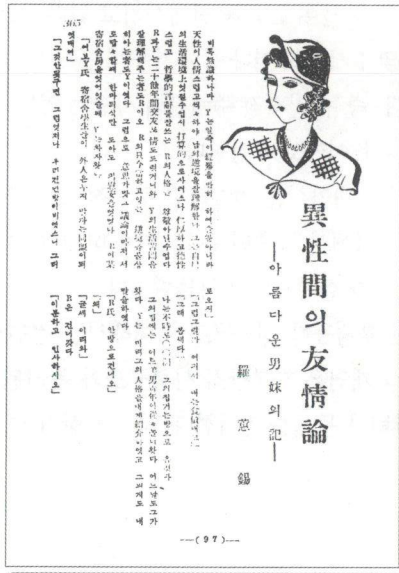
#### ◆ ‘정조’ 개념의 해체와 ‘성적 주체’

남성 지식인들이 자유연애결혼을 통해 자유와 사랑, 개인성의 가치를 추구했다면 나혜석, 김일엽, 허정숙 같은 여성 지식인들은 불평등한 성별구조와 남성중심적 성 규범의 비판과 해체를 시도한다. 특히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자유연애결혼’의 이상을 역설하고 있다면, 이들 여성은 ‘정조론’을 통해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어온 정조개념의 여성 억압성을 비판하거나 정조개념의 해체 혹은 재의미화를 시도한다.

자유연애결혼 담론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논자들간의 이러한 차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개인의 자리에 있지 못함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자유연애결혼을 통해 근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윤리적인 정당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의 자유연애결혼’은 전통적 성도덕인 정조라는 문제와 충돌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를 의심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정조 개념을 해체하지 않는 한, 자유연애결혼은 (지식인) 남성들의 자유와 사랑만을 보장하는 성별화된 혼인규범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해방은 정조의 해방부터 할 것”이라는 나혜석은 주장은 “사랑만 있으면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자유연애결혼의 가치가 여성의 삶에서 빛어내는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에 대한 직시이며, 근대적 개인이 결국 남성을 전제로 하는 성별화된 주체에 불과한 개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근대 지식인 여성들의 ‘정조론’은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에 대한 선언이며 가부장적 성별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성간의 우정론(삼천리/1935.6)



우애결혼, 시험결혼(삼천리/1930.5)

#### 4. 가부장적 성별구조와 여성의 경험

성별화된 혼인규범으로서 자유연애결혼은 남성과 여성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부여한다. 무엇보다 남성 지식인들은 자유연애결혼의 가치추구를 통해 봉건과 전통으로부터의 해방,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개인성을 형성해 간다. 더구나 근대사회에서 사랑에 기반한 결혼은 전통혼인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며, 자유연애결혼을 실천하는 남성들에게 근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남성적 주체를 전제하는 자유연애결혼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의 타자로 위치지워진다. 흔히 남성들은 여성을 '구여성'과 '신여성'으로 구분하는데, 신여성의 대립 쌍으로서 구 여성은 봉건의 잔재 즉 버려야 할 대상으로 상징화된다. 반면 신여성은 남성의 연애상대로서 혹은 결혼상대로서 이상화되지만, 신여성에게 근대의 이상적 여성상으로서 '현모양처' 상을 부과함으로써 여전히 가정적 여성에 대한 기대를 지속시킨다.

더구나 현실세계에서 자유연애결혼은 전통적인 조혼제도와 맞물리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여성들은 과거에 '구여성'과 한번 조혼을 했던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복잡한 혼인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혼인관계의 불안정성은 신여성들이 '첩' 혹은 '후처', '제2부인'의 위치에 처하게 하는 한편, 신여성들이 허영과 사치에 들떠 첩이 되거나 후처가 된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결국 자유연애결혼을 실천한 여성들의 삶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둘러싸인 채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문제들은 가부장적 사회가 아닌 개인 여성들의 '성적 문란' 탓으로 돌려졌고, 신여성들에게는 거의 언어 폭력에 가까운 사회적 비난과 조롱이 퍼부어 졌다. 신여성의 역사는 '마녀사냥'처럼 이루어진 이러한 비난과 사회적 조롱이 재능있고 총명했던 여성들의 삶을 가부장적 사회가 어떻게 억압했는가를 잘 드러내준다. 또한 이는 "여자는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하면 (정숙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가부장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5.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도전과 비판

근대 자유연애결혼을 매개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경험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 혹은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자유연애결혼 담론의 전개과정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에 대한 이해는 근대 신여성들의 삶을 '성적 일탈' 혹은 '개인적 해방의 추구'에서 비롯된 실패한 삶으로 규정해 온 기존의 통념이나 논의가 남성중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그런 점에서 근대 여성들의 경험과 삶은 가부장적 사회의 공고함과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의 존재를 증거하는 여성의 역사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녀관계나 성(섹슈얼리티)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별권력이 관통되는 억압의 핵심적 지점이며 '정치적 영역'임을 드러내준다. 그런 점에서 근대 여성들의 삶, 특히 신여성들의 주장과 실천들은 오랜 가부장제 역사에 대한 비판이며 남성중심적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과 실험이었다고 하겠다.





# QUIZ QUIZ

(※ 이 퀴즈는 이성애 남자를 대상으로 문항들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 갈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성장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잃게 하고, 서로를 해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주 세세한 행동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의 나의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답에 해당되는 점수를 더해보고, 점수카드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여자친구와의 저녁약속이 있는데, 같은 시간에 남자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는 제안을 했을 때

- a) 여자친구에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간다.
- b)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들과의 모임에 대해 얘기하고 저녁약속을 미루겠다고 얘기한다.
- c) 저녁식사후에 모임에 나갈 계획을 세워본다.

2.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도중 스킨십을 하려고 하나, 여자친구가 별로 내켜하지 않는 듯 보일 때

- a) 여자친구의 실패를 존중하고, 그만둔다.
- b) 당신이 얼마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설득해본다.
- c)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라고 묻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참고 있는지 얘기한다.

3. 어떤 사람에게 가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을때 당신은?

- a) 그녀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고, 그녀가 잘 안되기를 바란다.
- b)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자리를 떠난다.
- c)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상처 받았음을 숨긴다.

4.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괜찮은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는

- a)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친구
- b) 성관계 경험이 많고, 임신을 시킨 적이 있는 친구
- c) 피임에 관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친구

5. 모임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자는...

- a) 틀림없이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 b) 성폭력을 당하기가 쉽고, 이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
- c) 단지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6. 당신의 친구들이 여자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꼭 잡혔구나"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 하나요?

- a)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 b) 여자친구와 멀리 지내려고 노력한다.
- c) 여자친구에게 잠시 떨어져지내자고 얘기한다.

7. 스킨십에서 여자친구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을때,

- a) 추측해보고, 추측한대로 노력한다.
- b) 물어본다.
- c) 당신이 원하는대로 한다.

8.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지만, 당신을 그러고 싶지 않을때

- a)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당신을 시시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b) 솔직하게 얘기한다.
- c) 위의 두가지 다 아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거의 항상



성관계를 원하기 때문이다.

9. 여자친구에게 화 났을 때

- a) 다짜고짜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한다.
- b) 진정할 시간을 갖고난 후 솔직하게 얘기한다.
- c) 친구들 앞에서 몰아세운다.

10. 어떤 여자가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 a) 그녀는 섹폴이거나 그렇고 그런 여자일 것이다.
- b)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봐 줄 것을 원하고, 사람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길 원한다.
- c) 단지 자기 스타일일 뿐이며, 섹시하게 보이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11. 당신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남자라면

- a) 여자에게 귀찮이지 말라고 한다.
- b) 길을 갈 때 차도 쪽에 서거나 집에 갈 때 바래다 주는 등 여자를 항상 보호해주어야 한다.
- c)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12. 여자친구를 보고 "애기"라고 부르는 것은

- a) 여자친구가 없는 곳에서 얘기한다면 괜찮다.
- b) 여자친구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 c) 비인격적인, 비하하는 표현일 수 있다.

13. 안전한 섹스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은

- a) 여자의 책임이다.
- b) 시간만 드는 일인 것 같다.
- c) 서로의 책임이다.

14. 당신의 여자친구가 성폭력 피해자라면, 그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 a) 가해자를 찾아내서 복수해준다.
- b)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도록 한다.
- c) 당신이라면 다르게 했을 끼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자친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녀 스스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15. 여자친구와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 a) 더 좋은 섹스를 할 수 있게 한다.
- b) 더 복잡해 지지만 한다.
- c)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16. 당신이 데이트를 한 이후, 당신의 남자친구들이 "성관계는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 a)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 b) 얘기는 해주지만,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c) 여자친구와의 일대일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함부로 언급하지 않는다.

- 1 a:2 b:1 c:0 2 a:0 b:1 c:2 3 a:2 b:0 c:1 4 a:1 b:2 c:0 5 a:2 b:1 c:0 6 a:0 b:2 c:1 7 a:1 b:0 c:2 8 a:1 b:0 c:2 9 a:1 b:0 c:2 10 a:2 b:1 c:0 11 a:2 b:1 c:0 12 a:1 b:2 c:0 13 a:1 b:2 c:0 14 a:2 b:1 c:0 15 a:0 b:1 c:2 16 a:2 b:1 c:0

◆ ◆ ◆ 점수가드 ◆ ◆ ◆

- 21-30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만의 폭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 13-20 관계맺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어요.
- 8-12 몇가지의 기술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노력들이 필요 합니다.
- 3-7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세요.
- 0-2 진실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 위 문항은 MCSR의 퀴즈를 기본으로 상황에 맞추어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가려진 시간과 이웃들에 대한 기록

● 문효진(본 상담소 기획조직팀)

월드컵의 열기와 미군 퀘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에 항의하는 분노 그리고 서해교전의 긴장감이 어우러졌던 지난해 6월,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일대의 이른바 기지촌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해 2월부터 기획에 들어가 약 1년간의 제작과정을 거친 이 다큐멘터리는 올해 초, 극장 상영회를 통해 '우리들의 낮익은 언니들 그러나 그 언니들의 가려진 삶에 대한 이야기' 를 풀어놓았다.

### I. 그 '언니'에 대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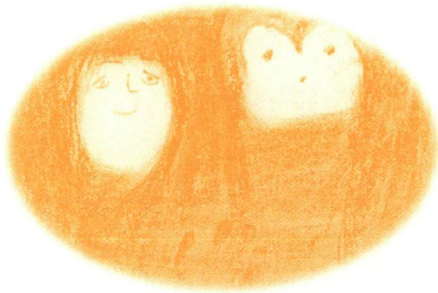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시 보산동에서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씨가 주한미군 케네스 이병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 6개월에 걸쳐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던 재판과정에서 범인 케네스 이병은 15년형을 확정받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야 한국정부는 비로소 범인의 신병을 인도 받을 수 있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사회과학동아리 선배들의 시선을 통해 나는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간 민족의 누이' 의 모습으로 처음 그 '언니' 들과 마주했다. 암묵적인 사회적 동의와 외면 속에서 강제되던 성매매의 굴레 안에서 이른바 '양공주·양갈보' 라고 불리었던 그녀들이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해 줄지에 '민족의 누이' 로 추앙되는 그 간극에 대한 나의 의의제기는 그저 '논쟁의 핵심을 흐트리는' 소수의견으로만 치부되었다.

'민족의 누이' 로 불리던 그녀들은 그저 (남성)민족의 치욕다른 나라의 남성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살해당하는-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만 각인되어지는 존재였던 것이다.

### II.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는 우리가 기지촌이라고 하면 의례 미루어 짐작하게되는 기지촌의 밤에 관한 시선을 거둬내고, 그곳의 일상-감추어진 낮에 대한 기록을 담담히 담아내고 있다.



〈나와 부영이 - 박인순 作〉

‘당신들이 아는 것은 기지촌의 밤일 뿐’ 이라는 다큐멘터리 팸플렛의 문구처럼 오랫동안 기지촌의 밤은 기지촌의 낮,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들까지 뭉뚱그려 편향된 하나의 이미지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전국에는 약 30여개의 기지촌이 산재해있는데 그 곳은 이른바 기지촌이란 공통의 대명사로만 불릴 뿐 본래의 이름을 상실한지 오래며 누


구나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주위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진 땅이 되어버렸다. 차별하고 배제하며 손사래치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진 곳이지만 우리네 여느 일상과 다른없는 보통의 일상이 이뤄지고 있는 여전히 우리 안의 공간임을 다큐멘터리는 보여주고 있다.

한때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했던 주인공 박인순씨의 일상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나와 부영이’는 기지촌 여성들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비춰낸다. 기지촌 여성 자활센터인 ‘두레방’에서 ‘언니’들이 보내는 사소한 일상-차를 마시고 밥을 먹거나 미술치료를 받으며 나누는 얘기,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기지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과거 클럽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상처 그리고 이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 등을 마주하게 된다.

### III. 가려진 삶과 이웃들에 대한 자각

그 ‘언니’-윤금씨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기지촌의 그녀들을 ‘누나’라고 부르며 그 ‘누나’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한 남성감독의 행보를 마주하면서 이제 ‘민족의 누이’에서 ‘일상 속의 누나’로 다가온 그 ‘언니’들의 존재감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겉으로만 드러난 풍요와 안정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었지만,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했지만 그 외면 속에서도 ‘언니’들은 여전히 우리가 두발 딛고 서있는 이 땅의 이웃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겨져 있었다. 별천지 속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그 ‘언니’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안에 존재해 있었다.

이젠 가려진 삶과 이웃들에 대해 자각할 때이다. 



## 러시아 성폭력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 경험속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박성자(한국국제협력단)

(오른쪽이 박성자님. 친구분 얼굴도 함께 신게 되어 영광입니다. ^ ^)

**작**년 여름, 사회 초년생으로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상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인연(?)이 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러시아여성의 상담을 돕는 기회를 가졌었다. 안면이 전혀 없는 곳에서 걸려온 도움 요청 전화. '성폭력'이란 단어 때문에 조금은 당황했었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가 앞섰다. 더욱이 갓 취업하여 회사 일은 여러모로 미숙했고, 취업하면서 이사한 집 정리를 하느라 생활의 여유가 없던 때였기에 선뜻 도움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 보잘 것 없는 도움이 상대방에게는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행동이 아닌 생각과 고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통역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만도 서러울텐데 고통스러운 일까지 당하여 그 억울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하소연하지 못하고 속으로 꼭꼭 참아내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무척이나 더웠던 날로 기억한다.

서울 지리에 어두운 나는, 쟁쟁 내리쬐는 햇볕을 원망하며 상담소를 찾기 위해 전화 통화 때 일러준 역과 건물들을 꼼꼼히 살피며 발길을 재촉했다. 상담소가 가까워 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만남 앞에서 맛보는 설레임이라기 보다는 생소한 일을 처음 접할 때 느끼는 그런 떨림이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상담소에 도착하여 실무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피해 여성의 상황에 대해 잠시 얘기를 들은 다음 상담실로 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 좋은 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어서 나는 그녀를 대하는 데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녀 역시도 조심스러워 하는 듯 했다.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둘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인사와 내 소개로 말문을 열었다.

그 외국인 친구는 러시아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와는 두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한번은 처음 상담소를 방문한 날 상담 선생님과 함께였고, 또 다른 한번은 상담 선생님과 경찰관들과 함께 동석했었다.

한국이 월드컵 열기로 한껏 달아있을 무렵 그녀는 안면이 있는 한국인 남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처음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렸다고 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담소로 오게 되었고, 상담에 협조적으로 응하면서 자신을 가해한 남자를 고소하고 싶어했다.

한국 지리에 어두운 그녀는 가해자의 집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이 쉽게 풀리진 못할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가해자를 찾고, 그 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계 경찰관들의 세세한 질문이 이어졌다.


외국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통역을 해봤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고, 짧은 러시아어 실력을 가진 내가 성폭력 상담이나 성에 관한 깊은 지식 없이 피해 여성의 상담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의 일을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고 끔찍할텐데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으며 대답을 듣고, 들은 내용을 다시 전하는 것은 너무나 곤혹스러웠다. 하지만 상담내내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곤혹스러웠을텐데도 잘 참아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나는 최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애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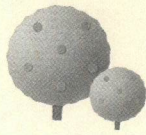
하지만 나의 도움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경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무렵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녀의 일을 더 이상 돕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녀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고, 일을 끝까지 돕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과 미안함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다행히도 경찰관이 가해자를 찾아내어 그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그간 마음 한 켠에 두었던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

그 러시아 친구의 일을 다시 떠올리니 상담소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떡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만 애썼던 나의 모습이 새삼 부끄럽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험해보니 그것이 그리 대단하거나 힘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다. 돕겠다는 마음 그 자체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와 실천력이 어우러지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늘 마음속으로만 품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행동으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도움을 건네는 것을 자신의 '희생'이라 생각하지 말길...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값진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겨울을 나면서 단단히 공공 얼어붙었던 화단의 흙밭은  
두터운 겨울옷을 벗을 때가 되어서까지도  
쉽게 녹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단단한 흙밭 사이로  
삐죽이 솟아난 연한 싹을 보았습니다.

작년 봄에 심었던 -  
100일을 붉게 피고는 사그라드는  
1년 초로만 생각했던  
백일홍 씨앗 4개짜  
봄에 스스로 제 몸을 다시 띄어  
연한 얼굴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생명력이 가져다 준 반가움으로  
지난 주말, 화단의 흙을 새로 다듬고  
백일홍 싹의 자리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겨울을 나고  
땅은 다시 단단히 굳고, 또 새로운 봄을 맞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백일홍의 파릇한 싹이 다시 띄워져  
새 봄을 맞는 즐거움을 저희에게 줄 것 같습니다.



(● 애가 상담소 화단에 올라온 백일홍 싹이에요.)



상담소를 아끼고 격려해주셨던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  
은 저 백일홍의 생명력처럼, 개소 이후 12년의 시간 동안  
저희에게 매 순간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딛고 나갈 수 있는  
반가운 얼굴이고, 손길이고, 큰 힘이었습니다.

100일을 붉게 피고도 그다음해 다시 연한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기운으로 새 봄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백일홍처럼,  
여러분의 후원은, 결코 짧지 않은 생명력으로 매해 저  
희를 새롭게 다져나가도록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 상담소 발간 자료를 20% 할인해 드립니다.
- 상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좌, 교육신청시 수강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각종 상담소 행사에 초대됩니다
-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공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납부 방식

▶ **CMS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의 협조로 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회비가 상담소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담소에 알려주시면 매달 26일 약정하신 금액이 인출됩니다.

▶ **자동이체** -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서 아래 상담소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국민은행 009-01-1176-632
- 외환은행 224-22-02532-8
- 기업은행 216-013179-01-018
- 조흥은행 308-01-133092
- 농협 037-01-194301
- 우리은행 441-04-107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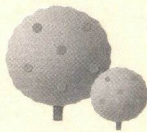
▶ **지로 납부** - 3개월에 한번씩 3개월 분의 지로가 연 4회 우편 발송됩니다.

※ 위의 납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어 기획조정팀 김지선 간사(02-338-2890)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 <물품으로 열린터를 후원에 주셨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에서 떡과 고기, 마포구청에서 쌀을 기증해 주셨구요.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화염동산에서, 그리고 김삼화 이사장님이 에어컨을 기증하셨어요. 상담원 이영란 선생님은 옷가지를 선물하셨구요. 영란여상의 이희숙 선생님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각각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선물해주신 강학중 선생님 감사드리구요. 늘 잊지않고 생리대 챙겨 보내주시는 유한컴빌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 아침밥이 주는 나무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영순	강인화	강현정	김광진	김덕현	김민지	김보연	김숙희	김정이	김혜정	나길희
박경실	송선옥	송현숙	안향숙	양효준	엄경출	오영국	오정은	옥민영	이경아	이영식
이철현	이현아	장하정	전성혜	조경희	조은희	조이수현	차성안	차유나	최귀복	최수정
최윤정	하진옥	허은주								

##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강현정	계경문	고계영	고규선	고금이	고순례	고영식	고정남	고진규	구나은
구민지	권경희	권기만	권수현	권순남	권정현	권주희	금철영	김종성	김강자	김강자
김경선	김경현	김경희	김광진	김금란	김동희1	김돌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라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지	김병숙	김보연	김삼화	김선민	김선에	김성득
김성신	김세중	김소명	김숙희	김순자	김순형	김연정	김엘림	김연정	김연희	김영권
김영서	김영애	김옥선	김용란	김용자	김원희	김월순	김윤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정
김용진	김의창	김이윤상	김인숙	김일륜	김정미	김정이	김정희	김종남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윤	김진만	김진희1	김진희2	김찬균	김하연	김혜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식	김현정	김형수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정	김화영	김화영	김효선
김후자	김홍식	김희경	나길희	남기태	남현미	노미순	노주희	도경숙	도순아	류승훈
마수정	맹주현	문효진	민용기	민현경	박경실	박경화	박귀자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부자	박선희	박성근	박소연	박소영	박수용	박순복	박신옥	박신정	박은숙
박정옥	박정희	박준규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1	박진숙2	박찬운	박창은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배은경	배희진	백명자	상묵스님	서명선	서미현	서민자	서성준	서정표
설연자	성시너	성은주	손명숙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송문숙	송현숙	신경선	신동현
신상호	신성희	신숙희	신은주	신정혜	신희경 SUNS (30대 싱글모임)		심수희(김인옥)			심혜련
안철민	안형윤	양 영	양애경	양연주	양효준	엄경출	여영자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영국	오유지	오은순	오은화	오정은	오정진	오정현	오태형	오현숙	오희선	오희옥
옥민영	우순영	원형섭	유경숙	유은주	유인숙	유자인	유현광	육향순	윤명화	윤선화
윤숙경	윤양현	윤영미	윤정희	윤지원	윤희숙	이경미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근혜
이나미	이내화	이대영	이덕화	이명숙	이명자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상근
이상미	이상은	이상임	이석민	이선숙	이성수	이성제	이소영	이수자	이순례	이순순
이애란	이어진	이영분	이영식	이영표	이윤선	이은미	이은애	이은숙	이인자	이재인
이정순	이정아	이종란	이종환	이철현	이춘미	이푸른메	이혜용	이현숙	이혜경	이혜숙
이호숙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이희화	임민희	임복선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순복	장운경	장계정	장철우	장하정	전경림	전민숙	전성혜	전연배	전영숙
전유경	전홍석	전희진(김현수)	정교화	정금자	정남운	정대현	정문영	정호성	조경희	정신애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유순	정은숙	정이숙	정인희	정호성	조경희	조소연
조순희	조은희	조인옥	조정숙	조정현	조중선	주남숙	주명희	지인순	차성안	차유나
채지수	천정환	최경식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선규	최양렬	최연옥
최영숙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윤정	최은경	최은미	최은순	최정운	최지너	최혜숙
하은주	한기모	한보경	한완수	한재철	허나은	허준복	홍만희	홍보연	홍성복	홍숙기
홍순기	홍은정	황성기	황계호							

##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 ^

강정자	강학중	고정남	권윤진	니콜라	변혜정	신동연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장필화
-----	-----	-----	-----	-----	-----	-----	-----	-----	-----	-----





본 상담소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유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미소들은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4만 1천여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부설 <열린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02) 338-2890~2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가 수 있습니다.

■ 상담 · 열린터 입소문의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 ksvrc@chol.com

**■이사장** 김삼화 **■이사** 김삼화 문해란 박찬운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이윤희 장철우 최영애 최보원 홍순기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에 백영애 교육학/김인수 서영근 정유성 현희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남성렬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이명숙 이백수 이윤희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최은순 최현희 경찰/김강자 이규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혜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혜성 장연집 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몽 권일훈 문국진 서중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석 황적준 비노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용기 박금자 박종민 손인숙 안명옥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유태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옥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혜련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 김영권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 방송학/김용숙 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 이인자 PD/고화찬 조소/홍성도 · **■21세기 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노실위원/지영선 · **■국제협력**/김선영 김사라 니콜라 박선미 안연선 이성숙 정경자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변혜정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차옥덕 철학/이상화 정대현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순옥 김엘림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소장** 이미경